

작품 내용

제 목	출처 없는 글
내 용	자그마치 4년이 걸렸다.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그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. 나의 청춘을 바쳐 내 인생만을 녹여낸 글이었다. 오로지 나, ‘한서윤’ 만의 이야기였다. 책 출판을 닦새 앞둔 어느 날. 난 보고만 말았다. 나의 책, 정확히는 나의 명언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.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. 물론 나의 삶이었기에 쓸 수 있는 말이었지만, 그래도 한 문장쯤이야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했을 줄 어떻게 알고. 그렇게 그 날은 핸드폰을 덮었다. 다음 날 아침,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.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한달음에 달려 나왔다. 그런 가족들을 둘러싸고 나는 조심스럽게 곧 세상에 나올 나의 데뷔작을 소개했다. 그렇게 소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,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막내 동생이 입을 열었다. “근데 누나, 그런 책 이미 있지 않아?”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. 하지만 이내 안도했다. “야 한태윤, 네가 무슨 책을 봤다고 그래? 평생 책이랑은 담 쌓고 지내왔으면서” 그러자 동생이 킁킁대며 말을 이었다. “맞지. 근데 나도 이번에는 노력 좀 했다고?” 그리고 방에 들어와 가져온 건 ‘독후감 대회 상장’ 이었다.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는 석자, 한태윤. “뭐야? 너가 상을 받았다고?” “그래, 누나. 아까 누나가 말한 그 내용의 책으로” 어이가 없었다. 머리는 그럴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쓴 책의 내용으로 동생이 독후감 대회 상을 받은 이 상황 자체가. 그때 지켜보고만 있던 둘째 동생이 말을 꺼냈다. “언니, 한태윤을 믿어? 분명 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뽐 글 보고 저러는 거지. 에휴 이런 자작 글에도 상을 주는 너네 학교나, 너나” “아이씨! 그런 거 아니거든? 네 앞가림이나 잘해 한지윤!” 동생들의 언성 높은 다툼을 들으며 생각해보았을 때 결론은 하나였다. 자작 글, 뽐 글, 독후감.. 아마 내 글은 유출됐고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. 동생이 그 글을 찾아 독후감을 썼다면 이미 인터넷에선 저명한 것이 틀림없다. ‘대체 누구지? 누가, 어떻게, 언제 내 글을 훔쳐 간 거지?’ 그날 밤, 본가에 남은 컴퓨터를 붙잡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들여다보았다. 그리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처음 유포자로 추측되는 두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. 하나는 매일 좋은 글귀를 올리는 계정이었고, 하나는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퍼 나르는 계정이었다. 그리고 그 계정에는 얼마 전 방문했던 출판사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. 사진 속에는 익숙한 공간이 찍혀 있었다. 출판사의 한쪽 벽, 내가 몇 번이나 지나쳤던 그 거울이었다.

그리고 그 거울 가장자리에 비친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, 숨이 멎었다. 사진을 보면서도 아니길 바랬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얼마 전 방문했던 출판사의 알바생, 지현씨였다.

얼마 전 출판사에서 우연히 만난 새로 온 알바생 지현씨는 책을 참 좋아한다고 했다. 그리고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설레는 표정으로 나에게 싸인을 부탁했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. 하필 그 날, 나는 출판사 대표님께 드릴 종이 원고들을 들고 있었고.

그래, 그때였구나. 대표님을 만나기 전 화장실이 급해서 원고들과 짐을 잠시 지현씨에게 맡겼던 듯하다.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니. 피가 거꾸로 솟았다. 알고 지낸 지 겨우 한 달밖에 안된 그 사람은, 그토록 선량한 미소로 짓던 그녀는, 나의 4년을 내다버렸다. 이미 사람들은 글의 출처가 인터넷인 줄만 알고 있었고 고작 그 몇 글자만 글 아래에 써 놓은 채로 내 글을 짜집기했다. 심지어 누군가는 자신이 그 글을 쓴 것처럼 꾸미고는 대필을 해주기도 했다. 당장 차를 몰아 출판사로 갔다. 아침이 밝아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출판소로 향하는 지현씨의 뒷덜미를 낚아챘다.

“까악! 어머, 작가님? 왜 이러세요?”

뻥뻥하기 짝이 없는 그 태도에 그렇게 웃음이 나왔다.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.

“지현씨, 왜 그랬어요? 왜, 왜, 대체 왜, 왜 그랬냐고요!”

“제가 뭘요?”

“지현씨, 솔직해져요. 나 다 알고 왔어요. 알고 왔다고요. 지현씨가 그 날, 내 글 허락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거 다 알고 왔다고요!”

“그게 왜요? 하 참나 그게 화낼 일이에요? 난 또,”

머리가 새하얘졌다. 빌어도 모자랄 판에, 그 이후로는 정신이 있는 듯, 없는 듯 했다. 그럼에도 한 가지는 또렷하게 기억 난다.”

“지현씨, 똑바로 들어요. 이건 범죄예요. 남이 몇 년을 바쳐서 써 낸걸, 당신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훔쳐간 거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출처조차 남기지 않았잖아요. 처음부터 제 것인 것 마냥.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 내 데뷔작이,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..”

이 이후는 기억 나지 않는다. 일어나보니 출판사의 어느 사무실이였다. 폭신한 소파에서 눈을 뜬 나는 몇 시간 동안 다시 눈물을 흘렸다.

출판사 대표님께 문자가 와 있었다. 지현씨를 해고처리하고 다시는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내용이였다. 아무 감흥도 들지 않았다. 슬프지도, 억울하지도, 화나지도 않았다.

며칠 뒤, 지현씨를 다시 만났다. 카페에 앉아 정적이 지속되던 무렵, 그녀가 말을 꺼냈다.

“죄송해요. 전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. 그냥..나중에 작가님 책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..오히려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제 생각이 짧았어요. 죄송합니다 작가님”

그녀의 사과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. 순수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

수였기에 더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. 차마 내가 그 날 보았던 그녀의 밝게
 빛나는 눈동자가 거짓이 아님을 믿고 싶었기에,
 몇 일 뒤. 서점에 내 책이 놓였다. 책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온갖 감정
 이 몰려왔다. 그때, 옆에서 한 학생이 책을 집어 들더니 옆의 친구에게 말했
 다.
 "이거 인터넷에서 본 글 모아놓은 책 아니야? "

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누군가 내 글을 훔쳐 간 날,
 어찌면 나는 내 문장뿐 아니라 내 이름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.